

# 식민주의, 언어,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

오 은 하(한국교원대학교)

## 들어가며

1. 흑아프리카의 언어 현황 : 공식어 프랑스어
  2. 프랑코포니의 논리
  3. 프랑스어인가 아프리카어인가
    - 3-1. 아프리카 내부의 언어분리
    - 3-2. 탈식민주의적 쟁점
- 나가며 : 거부 또는 전유

## 들어가며

아프리카는 흔히 ‘영어권’, ‘프랑스어권’, ‘포르투갈어권’ 등 구 식민지배국가를 기준으로 묶여 몇 개 권역으로 나뉜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침략에 의해 강요받은 언어적 정체성에 의한 구분법을 유지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답습이거나 여전히 지속되는 식민주의의 흔적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우리가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 지역(Afrique noire francophone)’에 접근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어

느날 프랑스가 자기 지역을 점령했기에 ‘프랑스령’으로 묶였고 프랑스의 동화주의 정책에 의해 학교에서 불어를 배웠고 관공서에 가서는 프랑스어를 써야 했던 지역 전체를 구 식민 지배국가의 언어에 따라 구분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선택을 부분적으로나마 정당화해 주는 것은 구 프랑스 식민지의 사람들이 불어라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세계인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각인시켰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은 네그리튀드 운동에서 보듯 불어로 쓴 문학작품으로 아프리카의 정신을 떨쳤고, 지배자의 언어 불어로 해방의 당위성을 역설했으며(프란츠 파농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작가와 이론가들은 프랑스어로 쓴 글로 그들의 문화와 삶, 사상과 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만약 그 지역 사람들이 고유어로 쓰이던 각 부족어 또는 민족어만을 사용했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접근할 기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 그에 더해 정당화의 또 한 가지 근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서부 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들이 스스로를 ‘프랑스어권 francophone’으로 규정하는 데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다. 사하라 이남의 구 프랑스식민 국가들이 독립 이후에도 스스로를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일부로 위치지우는 것은, 19세기부터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많은 프랑스어 사용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어가 공용어도 아니며 프랑스어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프랑스어를 대체할 공식어를 정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에서건, 프랑스어권에 속하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이유에서건, 사하라이남 흑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프랑스어권’으로 묶으려 하고, ‘프랑코포니 국제기구’의 창설에도 앞장섰으며 지금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 대부분에서 프랑스어는 단일 또는 공동 공식어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프랑스어권’이라는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의 존재 증거를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아프리카 문화를 말살시키는 또다른 식민주의의 증거를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프랑스어권 중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언어 사용 현황 속에서 프랑스어의 현위치를 살펴보고, 불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국제사회 속에서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과 불어의 공식어로서의 지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양자를 함께 검토해보려 한다. 양 주장의 토대가 되는 논리는 무엇인지, 그 논리는 정당한지,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논쟁적인 견해들을 소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 1. 흑아프리카의 언어 현황 : 공식어 프랑스어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두 문화권으로 나뉜다. 북아프리카와 중부이남 아프리카는 흔히 ‘아랍아프리카, 흑아프리카’, 또는 한 잡지의 특집호 제목처럼 ‘백아프리카, 흑아프리카’<sup>1)</sup>로 불린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 역시 이슬람권 문화에 속해있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은 여러 모로 구분된다.

---

1) *Revue Hérodote-revue de géographie et de géopolitique*, N°65-66 (1992), “Afrique noires, Afriques blanches”.

우리가 ‘흑아프리카’라 부르는 지역은 크게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대서양지역, 기네만 지역, 중앙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2)</sup> 이들 국가들의 프랑스어 사용실태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거의 모든 나라의 공식어 자리에는 프랑스어가 홀로 혹은 다른 언어와 함께 올라 있다.<sup>3)</sup> 그러나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50여개의 다양한 어족에 속한 1000여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행정, 교육, 통신에서는 프랑스어가 공식적으로 통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토착어나

2) 프랑스어권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사하라 아프리카지역: Mali, Niger, Tchad, Burkiana Faso (Haute-Volta) / 대서양 아프리카 지역: Sénégal, Guinée, Côte d'Ivoire, Guinée-Bissau, Cap-Vert / 기네만 지역: Bénin, Togo / 중앙아프리카: Guinée équatoriale, Sao Tomé E Principe, Centrafrique, Cameroun, Gabon, Congo,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ex-Zaire), Rwanda, Burundi, Djibouti.

이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브룬디는 과거 벨기에 식민지였고, 적도 기니는 스페인 식민지였지만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모두를 공용어로 한다. 각 국가의 인구와 사용언어 실태에 관해서는 김진식, 정남모, 『세계 프랑스어권 지역의 이해』,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9, p.47-48 참고.

3) <프랑스어의 공식어 사용 현황> (<http://www.tlfq.ulaval.ca/axl/index.html>) 사이트에 근거. 최은순,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 지역과 프랑스어」, 불어 불문학연구 제 56집, p.1021 참고)

프랑스어가 공식어인 국가	공동공식어 채택국가	
국가명	국가명	공동공식어
베냉	브룬디	프랑스어/키툼디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프랑스어/영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모르	프랑스어/아랍어
콩고공화국	콩고-자이르	프랑스어/영어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프랑스어/아랍어
가봉	마다가스카르	프랑스어/마다가스카르어
기니		
말리	르완다	프랑스어/영어/르완다어
니제르	세이셸	프랑스어/영어/크레올어
세네갈	차드	프랑스어/아랍어
토고		

지방언어를 쓴다.4) 더구나 이 지역 아프리카인들의 5%에서 10%만이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오직 공식 담화와 몇몇 법령들 때문에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5) 예를 들어 세네갈에는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복권’ 운동이 존재했던 언어인 월로프어(Wolof)이다. 월로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화자는 인구의 반 정도, 그리고 그 외 화자까지 포함하면 사용자는 세네갈 인구의 거의 9할에 이른다. 독립 후 프랑스어 교육의 보급을 위해 쏟아부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를 만족스럽게 이해하는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공교육과 행정을 비롯한 모든 공적 영역에서는 거의 순수한 프랑스어 단일언어주의가 유지되고 있다.6) 이와 같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주민이 구사하는 프랑스어를 공식어로서 교육, 행정 등에 사용하고,

---

4) 각 국가의 언어 상황은 <L'aménagement linguistique dans le monde> (<http://www.tlfq.ulaval.ca/axl/index.html>) 또는 <Ethnologue : Languages of the World> ([http://www.ethnologue.com/country\\_index.asp?place=Africa](http://www.ethnologue.com/country_index.asp?place=Afri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국가내에 통용되는 부족어는 수십에서 수백개로 집계되지만, 이는 유럽의 언어 개념에 의해 어휘가 분화되었을 뿐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족어들을 모두 구분한 과도한 통계라는 지적도 있다.(한양환 외, 『불어권 아프리카의 사회발전』, p.220-224 참고). 코트디부아르의 한 언어학자는 이와 같이 분화된 언어지형도가 아프리카 분할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라 주장하기도 한다.(카미유 로제 아블루, 『아프리카의 언어, 패러다임의 상실』, 홍미선,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 한울, 2009, p.10-15)

5) 장-루이 칼베, 김병욱 역, 『언어와 식민주의』, 유훈서적, 2004, p.292-293.

6) 스나노 유키토시, 「구 프랑스령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제 언어는 어떻게 ‘복권’될 수 있나? - 세네갈의 사례에서」,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미우라 노부타카, 가스야 케이스케 엮음, 이연숙, 고영진, 조태린 역, 돌베개, 2005, p.267-281 참조.

널리 전파된 초지역적인 아프리카어(월로프어 등과 같은)를 부족들간의 소통에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지역적으로 매우 한정된 토착어로 생활하는 삼중의 언어상황에 처해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언어 사용 행태를 언어간의 위계가 존재하는 양층언어(diglossie)<sup>7)</sup> 상황을 바탕으로 한 지방어와 교통어, 교통어와 공식어 사이의 삼층언어(triglossie) 또는 복합양층언어구조로 보기도 한다.<sup>8)</sup>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라는 명명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실제 프랑스어사용자의 수가 전체 인구에 비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공식어는 프랑스어인 것이다. 프랑스어를 공식어로 지정하는 이유로 흑아프리카의 각 국가가 드는 이유는 우선 언어적 통일의 필요성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다수 토착어들 중 하나 또는 여러개를 공식어로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족갈등을 피하고 사회안정과 국가통합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어를 공식어나 공동공식어로 채택한다고 말한다.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어로서 프랑스어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한다. 각 정부는 ‘프랑스어권’에 속해 있음으로써 프랑스어권 국가들간의 연대협력과 프랑스와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내세운다. 실제로 프랑스 및 프랑스어권 제1세계 국가의 기술원조, 교육분야의 재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논리 또한 만만치 않다. 식민지 유산인 언어로 인한 종속성과 식민성을 경계하는 목소리, 프랑스

---

7) 사회언어학자 퍼거슨Charles Ferguson이 제안한 용어로, 두 언어 사회에서 한 언어는 상위어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고, 다른 한 언어는 하위어로 비공식적 상황에서 주로 구어로 사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8) 소피 바보, 「마다가스카르의 언어상황」, 홍미선, *op.cit.*, p.96-99 참조.

어 공용화가 아프리카의 토착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는 주범이라는 주장은 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지점이 ‘프랑코포니’라는 쟁점이다.

## 2. ‘프랑코포니’의 논리

흑아프리카 지역에서 프랑스어 확산의 역사는 당연하게도 프랑스의 식민 통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식민시기 프랑스의 통치 체제는 흔히 말하듯 ‘동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한 때 아프리카 영토를 반분하다시피 했던 만큼 프랑스와 자주 비교되는 영국의 식민 체제는 독립 자치령들의 연방을 지향하는 반면, 프랑스의 식민지 동화 체제는 식민제국 전체를 프랑스의 일부로 간주하여 위임이 아닌 직접 통치를 통한 통합정책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통합정책의 명분은 ‘문명화’로서의 동화라는 이념이었다. 프랑스 언어, 프랑스 역사, 프랑스 가치관 등 선진화된 프랑스 문화와 제도를 식민지 원주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이들을 계도시키고 프랑스인들과 동등한 자유와 삶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sup>9)</sup> 아프리카인들을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했으며 그들을 프랑스 문화권으로 통합하려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체제는 영국보다 덜 인종주의적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지만, 실제 목표가 식민지 국가의 경제적 착취, 군사 거점의 확보 및 문화적 우월성의 확보에 있었다는 점은 양자가 다르지 않다. 더구나 프랑스 문화의 보편성과 우월성을 확신한 이와 같은 태도는 유럽의 아프리카

---

9) Jean-Marc Moura, *Littératures francophones et théorie postcoloniale*, PUF, 1999, p.30-31 참고.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논리로 쓰인 것이었다.

언어정책도 이런 맥락 하에서 행해졌다. 프랑스는 한 식민지 내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자국 언어를 ‘교통어’로 제시하고, 아프리카 사회의 ‘문화적 발달’을 꾀하기 위해 문명의 소산인 프랑스어를 교육, 확산시키고 토착어를 배제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은 동화주의에 기반한 언어 정책은 당연하게도 아프리카 고유의 문화를 말살시켰으며, 흑인들이 문명의 전달자인 백인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잃게 만들었고, 프랑스식 교육을 받았거나 프랑스에 충성한 식민국가의 현지인을 활용한 대리 통치방식을 통해 자신의 전통문화를 배격하고 프랑스를 모방하고 추종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배계층을 대거 양성하는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1960년대에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립을 맞이한 후에도 사하라 이남 흑아프리카의 많은 신생국가의 정부들은 스스로를 정치적, 문화적으로 프랑스어권 문화의 일부로 규정했다. 이는 독립과정이 비교적 덜 폭력적이었던 데 기

---

10) 프랑스 정부는 식민지 언어 교육의 목표는 프랑스어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이며 초등 교육의 필수 목표는 식민지 국민들이 프랑스어와 친숙해지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927년과 192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위원회에서.)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는데, 예를 들어 카메룬에서는 식민지 국민의 모국어 교육은 1일 1시간으로 제한했고,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책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를 책정하여 접근 자체를 최대한 방어했다. 식민지의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습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점을 중시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Hans Georg Wolf, “British and French language educational policies in the Mandate and Trusteeship Territories”, *Language Science*, Vol.30, 2008, p.565, 윤용수, 「레바논의 프랑스어 수용 양상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15집 1호 (2011.4), p.14 ; p.23에서 재인용.



인하기도 할 것이다. 프랑스에 맞서 무장투쟁을 거친 끝에 독립을 쟁취한 알제리와 인도차이나와 달리, 그리고 분규와 폭동을 거친 끝에 협상을 거쳐 독립한 모로코와 튀니지와도 달리, 사하라 사막이남의 흑아프리카는 1958년 ‘프랑스 연합’이 해체되고 1960년 독립이 달성될 때까지 프랑스와의 협상을 계속했으며, 대부분 프랑스 연합에 남았다. 또한 독립된 국가의 지도층을 형성한 것이 친프랑스화된 인사들이었다는 것도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탈식민지 이후에도 프랑스어를 공식어나 공동공식어로 채택하였으며, 신생 독립국의 지도자들은 프랑스의 문화적, 언어적 영향에 바탕을 둔 관계들을 지속하고자 적극적인 결집의 움직임을 보였다. 오늘날의 ‘프랑코포니 국제기구(OIF)’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주창한 것도 이들이었다.

‘프랑코폰francophone’이라는 개념은 그 식민주의적 함의 때문에 한동안 묻혀져 있었는데,<sup>11)</sup> 프랑스 식민지배를 벗어나 독립한 국가들에 길잡이 구실을 할 ‘훌륭한 도구’로서의 프랑스어를 찬양한 세네갈 초대 대통령 생고르Léopold Sédar Senghor의 글을 통해 다시 생명력을 얻는다.<sup>12)</sup> ‘프랑코포니Francophonie’의 창

11) “프랑코폰francophone”이라는 단어는 지리학자 르클뤼Onésime Reclus가 1880년 저서 『프랑스, 알제리, 그리고 식민지들France, Algérie et Colonies』에서 프랑스 식민지의 확장을 주장하며 언어적 요소에 관심을 보이면서 처음 사용했다. (Moura, *op.cit.*, p.5, note.1) 이후 식민지 통치 시절 프랑스인들이 현지인들을 분류할 때 ‘프랑스어를 해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식민통치에 사용하기 적합한 인력인가를 분류할 때 사용되던 ‘francophone’은 세계 제2차대전이 종식된 이후 신식민주의의 출현을 우려하여 한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최병대, 「프랑코포니(francophonie) 프랑스어 사용국가들의 특성」, 인문과학 제 29집 (1999), p.181)

12) “La Francophonie, c’est cet humanisme intégral, qui se tisse autour de

립 취지문으로 간주되는 이 글에 이어, 1964년 쟁고르를 비롯한 몇 국가 원수들의 제안으로<sup>13)</sup> 1966년 ‘프랑스어의 옹호와 확장을 위한 고등위원회 Haut comité pour la défense et l’expansion de la langue française’가 설립되었고 이후 OIF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다.<sup>14)</sup> 오늘날 ‘국제기구’에는 75개 국가와 정부가 회원국으로 가입(56개 회원, 19개 참관회원)해 있고, 회원국 전체 인구는 8억 9천만여를 헤아린다.<sup>15)</sup> 실제 프랑스어 사용 비율과 기구 참여 여부는 일치하지 않는다. 프랑스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알제리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기구의 구성 비율상 가장 많은 것은 최초 설립시에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냈던 후아프리카국가들이다.

---

la terre: cette symbiose des “énergies dormantes” de tous les continents, de toutes les races, qui s’éveillent à leur chaleur complémentaire” (Léopold Sédar Senghor, *Esprit* : “Français langue vivante” (1962), p.844, Moura, *op.cit.*, p.5에서 재인용)

13) 세네갈의 쟁고르, 튀니지의 부르기바Habib Bourguiba, 코트디부아르의 우푸에부아니Félix Houphouët-Boigny, 캄보디아의 시아누크Norodom Sihanouk, 나이지리아의 디오리Hamani Diori 등. Gabrielle Parker, “Francophonie et universalité: évolution de deux idées jumelles (1961-2006)”, *Culture coloniale en France -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à nos jours*, Pascal Blanchard et al. (éd.), CNRS Editions, 2008, p.699 참고.

14)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25개 국가들을 재규합하는 ‘문화예술협력기구 (ACCT, Agence de coopération culturelle et technique)’를 설립(니아메 Niamey 회의)하면서 1970년에 실질적인 국가간기구가 창립되었고, 쟁고르가 1975년 프랑코포니 정상회의를 요구한 후 1986년 2월 미테랑은 베르사유에서 제1차 프랑코포니 정상회의(Sommet des chefs d’Etat et de gouvernement des pays ayant le français en partage)를 개최했다. 이후 이 회의는 프랑코폰국가들을 순회하면서 2년 간격으로 열리며 프랑코포니의 행동 방침을 결정한다. 1995년 코토누 제5차 프랑코포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헌장에 따라 제도적 기구로 인정되었고, ‘프랑코포니 국제기구(OIF: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라는 명칭은 1998년 부쿠레슈티에서 채택했다.

15) 프랑스어권국가기구 홈페이지 <http://www.francophonie.org/-Etats-et-gouvernements-.html> (2011년 11월 현재)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랑스의 구 식민국가들이 프랑스와 함께 프랑스어라는 매개를 중심으로 모인 이 국제기구의 설립이 신식민주의적 기구라는 혐의를 비켜갈 수는 없었다. 대표적으로 기니 대통령이었던 세쿠 투레Ahmed Sékou Touré는 프랑코포니를 아프리카 민족주의의 이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안된 신식민주의적 트릭이라고 비판했다.<sup>16)</sup> 이런 공격에 대한 답은 프랑코포니 설립의 주축이었던 하비브 부르기바 전 튀니지 대통령의 말처럼 “프랑코포니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가 아니며, 프랑코포니에 가담하는 것은 신생 국가들에 도움이 되도록 식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원론의 확인이다.<sup>17)</sup> 프랑코포니는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중재자일 뿐이지 통치자가 아닌” 프랑스어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제적 공동체일 뿐이라는 것이다.<sup>18)</sup>

‘프랑코포니’가 끊임없이 내세워 온 존재의의는 ‘획일화를 조장하는 세계화의 위협성에 맞서기 위한 기구’이다. 프랑코포니의 이념은 프랑스가 꾸준히 제기해 온 ‘문화적 다양성’ 개념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 하는 듯 보인다.<sup>19)</sup> 그런데 이 때의 ‘세계화’는 사실상 미국화를, 그리고 영어의

16) Brian Weinstein, “Francophonie: A language-based movement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0, No.3 (Summer, 1976), p.494에서 재인용. 세쿠 투레는 1958년에서 1984년 그의 사망시까지 기니의 대통령이였다.

17) 김병욱, 「프랑코포니의 언어관 탐색 - ‘문화적 예외’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언어」, *op.cit.*, p.7-8에서 재인용.

18) Xavier Deniau, *La francophonie*, coll. *Que sais-je?*, PUF, 1983, p.7.

19) “문화적 다양성은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획일화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고유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문화들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Catherine Trautmann, “L’exception culturelle est le moyen juridique, la diversité culturelle est notre objectif”, *Dossier, Ministère culturel et de la communication*, bimensuel n°56, 10 nov.1999, 김병욱, *op.cit.*, p.4에서 재인용.

압도를 의미한다. 프랑코포니가 영어의 독점에 대항하여 언어 다양성을 수호하는 전위로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프랑스가 불어의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영어에 빼앗기고 세계적으로 프랑스 문화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데 대한 방어를 외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sup>20)</sup>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프랑코포니 국제기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프랑스의 지위가 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미국과 영어의 헤게모니에 대항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성을 갖는다.<sup>21)</sup> 특히 20여개의 흑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어를 공식어로 채택하여 국가적 혹은 공적 차원에서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에게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들 지역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그리고 문맹퇴치와 학교교육을 통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기에, 프랑스어 화자의 수가 증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sup>22)</sup> 오늘날 적극적인 반프랑코포니

20) “Pourtant, face à l’expansion anglophone, l’organisation d’un espace francophone (et la notion de communauté) ne relève pas uniquement du francophonisme, cette idéologie linguistique bizarre souvent perçue de l’étranger comme une machine de guerre pour préserver des zones d’influence. Elle sert un mouvement d’autonomie linguistique et culturelle, comme il est apparu lors des négociations du GATT, en 1993, quand la France a pu associer une partie des Européens à la revendication d’“exception culturelle”, reprise lors du sommet de Maurice (novembre 1993). La francophonie répond ici à l’angoisse de ceux qui craignent de voir un patrimoine culturel et linguistique sinon disparaître du moins se marginaliser”. (D.Baggioni, “Eléments pour une histoire de la francophonie (idéologie, mouvements, institutions)”, Moura, *op.cit.*, p.39에서 재인용).

21) 프랑스 내부에서 좌우파를 막론하고 공유된 미국의 일극 지배에 저항하는 문화방위론과 프랑스어 옹호론, 이를 위한 외교 전략으로서의 프랑코포니에 관해서는, 미우라 노부타카, 「공화국의 언어동화정책과 프랑코포니」,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op.cit.*, p.143-146 참조.

22) Parker, *op.cit.*, p.698에서 소개하는 Philippe Lalanne-Berdouticq의 견해 참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토고 출신 활동가 로드리그 크포글리는 이런 측면에서 프랑코포니를 “아프리카의 종복들”, “아프리카의 꼭두각시 정부들”이 타자의 언어를 능동적으로 진흥시켜나가기 위해 모이는 회합으로 보고, 더 나아가 “유독성의 신식민주의적 연합”, 노예제와 식민통치가 완전히 막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며 맹렬히 공격한다.<sup>23)</sup>

사실 프랑스에서는 ‘탈식민주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 1970년대 말 이후 제1세계 제도 학문권에 유입된 제3세계 지식인들(스피박, 바바, 사이드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식민주의와 식민 이후의 상황에 접근할 때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기본 개념들은 푸코, 데리다 등의 프랑스 철학에 기반한 것이 많은데도 프랑스 자체의 탈식민주의 이론은 찾기 힘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 프랑스는 “고립된 섬처럼 국제적 조류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비판이 잦다.<sup>24)</sup> 1996년 파리에서 이 주제에 관해 처음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튀니지의 작가 압델와하브 메데브(Abdelwahab Meddeb)가 물은 것처럼, 프랑스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사상의 지평이 되어있지 않은 것은 “프랑스어의 공유라는 미명 아래 프랑스의 문화적 헤게모니 회복을 기도한 것이 주효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23) 로드리그 크포글리,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를 질식시키는 프랑코포니》, 홍미선, *op.cit.*, p.51-53.

로드리그 크포글리는 ‘아프리카 민주주의를 위한 청년연합(Jeunesse Unie pour la Démocratie en Afrique (J.U.D.A))’이라는 단체의 의장이다. 이 단체의 웹사이트 <http://www.lajuda.blogspot.com/> 참고.

24) “Qu’est-ce que la pensée postcoloniale?”, Entretien avec Achille Mbembe, *Esprit*, décembre 2006, “Pour comprendre la pensée postcoloniale”. 이 언급과 함께 프랑스의 포스트식민적 관심이 약하다는 비평과 연구에 대해서는 노서경, 「프랑스 식민주의 비판 사학의 동향 - 질 망스롱과 클로드 리오쉬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제19호, p.249-250 참조.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실제로 프랑스에서 ‘언어 제국주의’를 문제삼을 때는 언제나 영어와 관련해서이며, 자신들의 ‘언어제국주의’는 과거의 일로 치부하는 일이 잦다. 한 연구자가 지적하듯, “지구화에 의해서 편재화한 영어 지배 때문에, 프랑스는 반권력과 저항의 입장에 서서, 스스로에게는 언어 헤게모니 비판을 면제하는 측면이 있다.”<sup>26)</sup>

따라서 프랑스와 프랑코포니의 문화다양성 논의는 이중성을 띤다. 특히 언어적 측면에서 다양성의 강조는 “소규모 지역 언어들의 보호가 아니라 프랑스어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는 것”<sup>27)</sup>이라는 혐의는 뚜렷하다. 루이-장 칼베가 그의 첫 저작 『언어와 식민주의』에서 ‘언어포식glottophagie 식민지배’라는 이름을 붙이며 집중적으로 고찰한 것이 이 부분이다. 여기서 그는 한편으로 프랑스의 단일언어주의(특히 국내 지역어에 대한)와 프랑스가 주장하는 다언어주의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다른 한편으로 아프리카에 문명 언어로 부과된 프랑스어의 지위를 비판한다.

물론 ‘프랑코포니 국제기구’ 내부에서 군소 언어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지 않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 자신의 나라말로 정보를 얻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문화 자산의 자유로운 유통을 명분으로 내세울 경우에조차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될 수 없는 권리”라고 선언하며, ‘국

---

25) 미우라 노부타카, *op.cit.*, p.165 참조. 여기서 노부타카는 반식민주의자 뎀미와 파농까지도 끌어들이며 프랑코포니가 곧 포스트콜로니얼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프랑코포니의 회수 기능’의 위험성을 예시한다.

26) 미우라 노부타카, *op.cit.*, p.167.

27) 김병욱, *op.cit.*, p.11.

제기구'는 “아프리카, 크레올 언어들의 발전과 사용을 조장하고, 이 언어들이 프랑스어와 조화를 이루어, 문어 환경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한다.”<sup>28)</sup>는 방향성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언어주의 상황의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지역 언어들의 사용 및 교육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식민지시절 언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불어만을 교육언어로 설정하고 있다는 데서, 이런 선언은 선언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자연스럽다.<sup>29)</sup>

그러나 프랑코포니의 논리에 깃든 언어 제국주의의 함의를 이렇게 드러낸다 하더라도 프랑스어권 혹은 아프리카에서 불어의 사용 또는 거부의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이미 아랍어라는 공용어의 위치를 차지한 언어가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획득한 마그레브 지역과는 다르게, 프랑스어권 혹은 아프리카 지역에 존재하는 수많은 토착어 가운데 공식어를 지정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낳는다.

---

28) Assemblée parlementaire de la Francophonie, “Déclaration de Strasbourg”, Strasbourg, le 15 janv. 2003 ; Sada, Hugo (dir.), *Rapport du Secrétaire général de la Francophonie, de Ouagadougou à Bucarest 2004-2006*, Paris, OIF, 2006, 김병욱, *op.cit.*, p.12-13에서 재인용.

29) “일간 간행물은 (인쇄된 신문이든 등사한 회보든 간에) 모든 곳에서 (한 번 더 마그레브의 경우를 제외하면) 프랑스어로 작성되고, 취학 아동의 교육은 (취학률은 평균 50%였는데) 모든 곳에서 프랑스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역 언어들이 사용되는 유일한 곳은 라디오 방송인데, 일반적으로 여러 언어들로 이루어지는 뉴스에서 지역 언어가 사용된다. 이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 매체가 체제의 재생산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곧 지역 언어들에 라디오라는 매체를 개방함으로써 구승의 속성을 지속시키지만, 글쓰기는 대부분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프랑스어로 이루어진다. 또 한편으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서 현대 문학은 주로 프랑스어로 이루어진다. 일간 신문 또한 프랑스어로 발간되며, 학교는 쓰기 영역에서 이러한 통계적인 우위를 강화하려 한다.” (루이-장 칼베, *op.cit.*, p.295)

### 3. 프랑스어인가 아프리카어인가

프랑스어로 국가어를 통일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주로 의사소통의 편이성, 국제 사회에 편입가능성이 높다는 점,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데 합당하다는 데로 모아진다. 카메룬 출신으로 프랑스 이민부 장관의 고문을 지내기도 한 가스통 켈만은 아프리카가 언어문제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랑스어 교육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sup>30)</sup> 특히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수없이 많은 토착어들 가운데서 해답을 찾기보다 프랑스어라는 도구를 이용해 언어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sup>31)</sup>

30) “그렇지만 최근 모국어 사용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과연 이러한 주장이 합당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화 상대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 복수심에 의한 것이든 오랜 숙고에 따른 것이든, 민족주의를 찬양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하는 이러한 주장들의 동기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어들이 전파하는 ‘무엇이든 아름다운 것은 모두 흰색’이라는 흑인의 열등의식을 뿌리뽑기 위한 언어학적 연구의 성공적 결말을 기대하면서, 아프리카의 그 시작점에서 지식인들은 지금 유일언어의 필요성과 100여개 지방어의 중요성을 번갈아 강조하는 모순적 요구의 남발에 만족하는 듯하다. (...) 나는 이들 농촌인구를 오로지 상징적, 감정적 차원에서만 중요성이 인정되는 그 빈약한 바싸어에 붙잡아두기보다는 차라리 프랑스어로 교육해 탈문맹화하는 게 더 쉽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소통의 방식인 동시에 문화적 버팀목으로서의 프랑코포니는 언어통일을 회구하는 아프리카인들에게 하나의 기회다. 이런 방식으로 언어문제의 질곡에서 일단 벗어난 아프리카는 다른 시급한 문제의 해결에 전념할 수 있다.” (가스통 켈만, 《언어의 교차지, 카메룬》 (“La terre carrefour: Cameroun”, Hermès, N°40, 2004, p.90-92), 홍미선, *op.cit.*, p.60-67).

31) “그들은 앵글로-색슨족의 현실주의를 프랑스의 동화주의의 이데올로기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동화주의 이데올로기가 ‘식민지배자의 언어’를 강요했으며, 대륙의 자기 몫을 잘게 조각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더 좁아지기는 했지만, 하나의 공통 언어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새로운 국가들을 탄생시키는 데, 반대 방법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의 민주화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프랑스어의 보급은 내적인 평화의 필요조건인 것 같다.” (Auguste Viatte, *La Francophonie*, Paris,



이런 주장에 대립되는 관점의 주요 논거는 크게 두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국가 내부의 계층 질서 문제와 관련해, 엘리트층을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아프리카 토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식민 통치하에서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해 교육한 프랑스어가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지도자나 엘리트층에 의해, 그들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민족주의 또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이 있다. 과거 식민지의 잔재를 벗어버려야 한다거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 민족어의 진흥을 막는 프랑스어의 공식어화 및 독점언어교육은 신식민주의적 행태인 것이다. 이 두 쟁점을 차례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 3-1. 아프리카 내부의 언어분리

가장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은, 프랑스어의 공식어 지위가 실제 사용인구와는 거의 관계없으며 특정 사회계층의 언어적 프랑스화에 따른 일이라는 비판이다.<sup>32)</sup>

애초에 프랑스가 현지인의 프랑스어 교육에 힘을 쏟은 이유는 극히 일부의 식민지인들을 교육하여 식민지 행정과 경제활동의 보조요원을 양성할 필요에서였다.<sup>33)</sup> 1855년 흑아프

---

1969, p.108-109)

32) “le statut officiel d'une langue n'a parfois que peu de relations avec son usage par la population. Au Sénégal, l'Etat est purement francophone, mais la population ne l'est que très partiellement. (...) La francophonie de l'Afrique subsaharienne correspond non à des communautés mais à la francisation linguistique de certaines couches sociales.” (Moura, *op.cit.*, p.38)

33)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취학 아동수가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OF)에서 7만명, 인구 500만명인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AEF)에서 1만명이라는 숫자는,

리카에서 처음으로 세네갈에 설치된 학교의 이름이 ‘인질 학교’였다가 ‘수장의 자제 학교’로, ‘수장의 자제 및 통역 양성 학교’로 개칭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식민지 교육은 현지 사회에서 이미 특권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엘리트층을 식민지 체제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것이 현지 사회의 계층적 분리와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은 쉽게 짐작가능하다.

실제로 오래전 프란츠 파농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에서 이미 지적했듯, 식민모국의 언어, 곧 프랑스어는 식민지배 시기 피지배자들에게 차별적인 계서제를 내면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중요한 장치였다. 흑인들은 식민모국의 문화적 수준을 자신이 어느 정도 전유하고 있느냐, 한 마디로 불어 구사능력에 따라 백인화의 정도와 인격까지도 평가받으며 이를 내면화하였다.<sup>34)</sup> 그 가운데 식민 지배하에서 불어를 충실히 익힐수 있었던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이 해방 이후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프랑스어의 편에 섰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서 루이-장 칼베가 그의 첫 저작 『언어와 식민주의』에서 했던 신랄한 평가를 들어보자.

그런데 일단 독립하고 나면,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대개 프랑스어를 통하여 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였으며 이론화하였다. 헌법, 법률들이 프랑스어로 제정되었고, 신문은 프랑스어로 발간되었다. 법원의 판결마저도 프랑스어로 행해졌다. [...] 일단

---

학교교육이 일부의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미우라 노부타카, *op.cit.*, p.161)

34)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역, 인간사랑, 1995, 7장 “흑인과 인정투쟁” 참고.

식민본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을 장악한 지역의 부르주아지들은, 국민이 특히 그들의 언어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또는 적어도 이러한 박탈을 영속화하면서, 그들이 행한 투쟁의 결과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열중하였다.<sup>35)</sup>

이렇게 해서 식민지의 언어적 상부 구조는 지속, 강화되며 프랑스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사이의 계층의 골이 깊어진다. “이는 언어적 상부구조의 전복을 동반하지 않는 모든 명목상의 해방이 피지배언어를 말하는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지배언어를 사용해왔으며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회 계층의 해방임을 뜻한다.”<sup>36)</sup> 그리고 프랑스어 영향력의 지속은 물론 아프리카 내부의 엘리트들에게만 긴요한 것은 아니다. 루이-장 칼베는 프랑스어의 물자를 팔 수 있게 하기 위해 문제되는 나라들에 프랑스어 사용 엘리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프랑스어의 옹호와 프랑스의 이득의 옹호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예로 말리에서 문자교육운동을 통하여 실리를 취한 측은 궁극적으로 프랑스 회사들이었다는 예, 세네갈에서 모든 기간 산업영역이 프랑스 자본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예를 들며, 칼베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는 언어차원에서 이른바 독립국이라는 나라들에 부과된 신식민주의 경제와 짝을 이룬다고 단언한다.<sup>37)</sup>

한 발 더 나가, 프랑스어 능력을 쌓고 식민 통치국에 충실하게 동화되어 현지 관리가 된 사람이 ‘프랑스적 가치’의 신봉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유토피아적 시정에 가득찬 생

---

35) 루이-장 칼베, *op.cit.*, p.186.

36) *Ibid.*, p.183.

37) *Ibid.*, p.302-303

고르의 ‘프랑시테francité’(프랑스 문명과 프랑스 문화의 정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리키는 생고르의 표현) 예찬론, 프랑스어의 보편성과 우수성에 대한 주장들은 그런 경향을 가장 세련되게 발전시킨 예시가 될 것이다. 사실 생고르가 표현한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에 대한 신화는 그 역사가 깊다. 프랑스는 국가언어 이데올로기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공표되었던 나라였고, 불어의 우수성에 대한 선전은 곧바로 바다 건너 식민지들로 퍼져나갔다. 중심이 되는 두 가지 논거는 보편적 인간이성의 언어로서의 “프랑스어의 명징함clarté française”과 그것의 “문명화 사명mission civilisatrice”이다. 전자는 1784년 리바롤의 책 『프랑스어의 보편성에 관하여』에 등장한 유명한 언명,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불어가 아니다.”에서 유래한다. 이 문장은 바로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로 이어진다. (“Ce qui n'est pas clair n'est pas français; ce qui n'est pas clair est encore anglais, italien, grec ou latin.”<sup>38</sup>) 우월한 언어인 불어는 보편적 문명을 담보하는 언어로 특권화되고, 이는 전인류의 진보를 위한 ‘문명화 사명’에 의한 식민지화를 정당화한다. 언어에도 미개한 언어와 발달한 언어가 있듯, 보편적 문명으로부터 뒤떨어진 열등 민족도 선진 문명의 언어로 바꾸는 것에 의해 개화된다는 논리이다.

---

38) Rivarol, A., *L'universalité de la langue française*, Paris: Ariéa, 1991, p.73. 특히 그는 영어의 결함을 반복해서 공격한다. (“On peut dire, en outre, que, si l'anglais a l'audace des langues à inversions, il en a l'obscurité, et que sa syntaxe est si bizarre que la règle y a quelque fois moins d'applications que d'exceptions. On lui trouve des formes serviles qui étonnent dans la langue d'un peuple libre, et la rendent moins propres à la conversation que la langue française, dont la marche est si leste et si dégagée.”, 앞의 책, p.69, Keisuke Kasuya, “Discourses of linguistic dominance: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french language ideology”,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7(3-4), 2001, p.244에서 재인용.)

이런 논리의 메아리는 오늘날에도 자주 들려온다. 특히 ‘프랑코포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론에서 불어의 우수성과 역량은 항상 강조된다. 불어의 “지적 엄밀성”이나 “명확성”을 찬양하는 언어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가정이라기보다 신화나 이데올로기의 영역에 속하는 듯 보인다.<sup>39)</sup> 영어는 “편리한 소통 수단”에 지나지 않는 반면 프랑스어에는 정신과 신비가 깃들어있다고 말하며, 드니오는 튀니지의 한 장관이 했다는 “영어는 전화기, 불어는 준거가 되는 문화적 체계”라는 말을 인용한다.<sup>40)</sup> 오늘날에도 프랑스어의 ‘문명화 사명’은 건재한 것이다.

이런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현재 프랑코포니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인 압두 디우프Abdou Diouf<sup>41)</sup>가 최근 파리에서 한 연설의 내용을 인용해보자.

저는 프랑코포니 덕분에 처음으로 책이나 인터넷에 접근한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위기에서 벗어났거나 갈등 이후의 상

---

39) 예를 들어보자. “J’aimerais insister sur la rigueur intellectuelle de cette langue française (...). Cette obsession de la clarté, de la rigueur, de la précision, est inscrite au coeur même de ceux qui ont à la fois forgé cette langue et réfléchi sur elle.” (S. Farandjis, *Philosophie de la Francophonie*, Paris: L’Harmattan, 1999, p.21) ; “Le charisme de la langue française semble reposer essentiellement sur les qualités de clarté de la langue. (...) Cette clarté est devenue une sorte de mythe parfois incarné: les Etats arabes se réfèrent au texte français de la résolution 242 des Nations Unies (1967) (“... se retireront des territoires occupés”), plus précis que l’anglais (“... of occupied territories”) concernant les territoires occupés par l’Israel.” (Deniau, *op.cit.*, p.21) 두 책의 저자는 모두 프랑코포니국제기구의 고위인사였다.

40) Deniau, *op.cit.*, p.105.

41) 쟁고르가 독립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20년간 집권한 후 뒤이어 권좌에 올라 역시 20년간 세네갈의 대통령이었던 압두 디우프는 퇴임 후 2002년부터 OIF 의장직을 맡고 있다.

황에 있으면서 민주적 전환과, 안정과, 평화로 가는 길에 프랑코포니국제기구가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보는 이 국민들에게, 프랑코포니 덕분에 처음으로 작품이 생산되고 출판되고 널리 전파된 제3세계의 예술가들에게 프랑스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영어에 밀려난 불어의 지위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불어로 말하지 않는 프랑스인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불어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인권과 자유의 언어로 들리기에 세계의 어떤 지역들에서는 불어는 저항과 동의어라는 것을, 또다른 지역들에서는 독재에 던져진 항거의 울림을 갖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불어를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강력한 정치적 행동이고, 모든 프랑코폰 국가들과의 연대와 우애를 재확인하는 방법이고, 세계 시민의 자격에 이르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랍니다.42)

이러한 관점에서 구식민지 프랑코폰 국가들과 관련한 언어 제국주의의 혐의는 ‘자발적 수용’이라는 논거로 부정된다. 프

---

42) “J’aimerais qu’ils sachent ce que le français représente pour ces enfants d’Afrique qui, grâce à la Francophonie, ont accès pour la première fois au livre ou à l’internet, pour ces populations en sortie de crise ou en situation de post-conflit qui voient la Francophonie les accompagner sur le chemin de la transition démocratique, de la stabilité et de la paix, pour ces artistes du Sud qui, grâce à la Francophonie, peuvent, pour la première fois, être produits, publiés, largement diffusés. J’aimerais qu’ils sachent que, dans certaines régions du monde, le français est synonyme de résistance, que dans d’autres, il sonne comme un défi lancé à la dictature parce qu’encore et toujours ressenti comme la langue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liberté. J’aimerais qu’ils soient convaincus que parler français est déjà en soi un acte politique fort, une manière de réaffirmer sa solidarité et sa fraternité avec tous les francophones, une manière d’accéder à la citoyenneté mondiale.”, 《Discours d’Abdou Diouf - Paris, le 3 décembre 2011》  
(<http://www.francophonie.org/Discours-d-Abdou-Diouf-Paris-le-3.html>)

랑코포니 고등심의회 사무국장이었던 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전형적이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제연합이 창설될 때에 프랑스어가 국제적인 지위를 얻었던 것은, 많은 나라가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자발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위가 채택된 것은, 프랑스의 요구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 아이티의 요구에도 따른 것이다.”<sup>43)</sup> 열세에 놓인 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들은 패권을 가진 언어로 이행함으로써 위에서 압두 디우프가 말한 것과 같은 수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불어의 전파는 이를 위한 화자의 자유로운 언어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가 언어 제국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데올로기라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sup>44)</sup> 일단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의 현재 언어 상황을 볼 때 프랑스어를 선택하는 ‘자발성’은 개인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각 나라의 지배 계층을 이루는 엘리트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선택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루이-장 칼베는 “신식민주의에 매수된 현지 정부들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억압을 아프리카 민중들이 가지는 만장일치의 욕구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정확히 오늘날 프랑스어권 이데올로기의 요점을 이루”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다.<sup>45)</sup>

43) Farandjis, *op.cit.*, p.33. 저자는 1983년에서 2001년까지 프랑코포니 고등심의회 사무국장직을 역임했다.

44) 한 연구자는 지배언어의 확대가 받아들이는 쪽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는 이론은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언어의 권력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언어 제국주의의 전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적 강제가 없다고 해도 화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언어 이동에는 익명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밝힌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포스트식민지 시대의 언어제국주의를 분석하는 데 대단히 유용할 것이라 제시한다. (가스야 게이스케, 「언어 헤게모니 - ‘자발적 동의’를 조직하는 권력」,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op.cit.*, p.369-391)

그러나 이런 비판에 대해 불어 사용과 확산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실론을 내세우며 대안이 없음을 강변할 것이다. 앞의 공식어 도표에서 보듯 이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토착어만을 공식어로 삼는 국가가 없는 것은,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언어를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각 언어와 그것을 사용하는 민족들, 부족들 사이의 역학 관계 속에서, 새로운 토착어를 공식어로 삼아 다른 언어 화자들에게 보급하고 강제하는 일이 쉬울 리 없다. 그에 더해 토착어를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당연하다. ‘아프리카어로서의 프랑스어’를 인정하고 불어를 세계화의 손쉬운 통로로 활용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 3-2. 민족주의 또는 탈식민주의적 쟁점

프랑스어를 지배자의 언어가 아닌 유용한 ‘기회’로 보고 불어사용을 선택하자는 것은 언어는 사고를 실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는 언어도구관에 근거한다. 화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사용 언어를 바꿀 수 있으며, 이 때 자신에게 유리한 패권을 가진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는 자신의 언어가 제공하는 가능성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가설 역시 그 이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사고를 조직화하는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관에 기반해 생각한다면, 특정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구로서 그 언어를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45) 루이-장 칼베, *op.cit.*, p.307.



그 언어가 내포하는 한 문화의 무게를 담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언어는 민족정체성의 기반이 되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큰 위험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민족집단은 언어를 정체성 확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특질 중 하나로, 자신의 전통을 유지시키고 표현해주는 매개체로 간주해왔다. 실제로 한 민족의 해방은 식민주의가 강제한 지배언어에 맞서 말을 해방하는데 달려있다는 생각은 일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프리카인들에게 불어의 선양과 아프리카어들의 쇠퇴와 관련하여 우선 중요했던 쟁점은 민족주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프란츠 파농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1954),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1964)등의 저서에서 역설하는 정신의 탈식민화, 곧 정치, 경제적 독립 뿐 아니라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해방을 통하여 진정한 탈식민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되찾아야 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에는 언어가 있다. 아프리카의 언어 내셔널리즘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 셰이크-안타 디오펠Cheikh-Anta Diop은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를 그 기원에서부터 복권하려고 하면서, 식민지배에 의해 발전을 저지당해 온 아프리카 사회를 현대 문명 속에서 재건해 나가려면 외국어에 지나지 않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아니라 아프리카인 자신의 언어를 현대 문명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하였다.<sup>46)</sup> ‘범아프리카 민족주의nationalismes panafricains’ 운동 역시 아프리카에서의 유럽 언어들을 무력으로 강제된 외국어로 보고 아프리카 언어들을 사용하고 교육할 것을 역설했다.<sup>47)</sup>

46) 셰이크 안타-디오펠, 「아프리카의 르네상스」, 홍미선, *op.cit.*, p.43-51.

47) “We must promote the usage and teaching of African languages

이런 견해에 입각해 언어적 식민상황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탈식민 이후 불어가 아닌 자국의 현지 지방언어로 의사소통체계를 만들어보려 했던 구체적인 시도로 우리는 기니와 세네갈 재야운동의 예를 들 수 있다.

우선 기니는 드골이 프랑스 관할 영토 주민들에게 신연방에 합류할지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1958년, 유일하게 프랑스 신연방 합류를 ‘반대’하고 독립을 원한 국가였다. 세쿠 투레 기니 대통령은 흑아프리카에서 반식민주의 투쟁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기니는 언어면에서도 철저한 ‘탈식민지화’ 정책을 선택해, 기니에 존재하던 아프리카 언어들 가운데 8개어를 표준국어로 정해 적극적인 문맹퇴치운동을 추진했다. 특히 1968년부터 교육 개혁을 시작하여, 8개국어 중 어느 하나의 언어를 선택해 현지어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84년 세쿠 투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교육분야에 관한 정책은 전적으로 불어로 되돌아갔으며, 기니의 언어 정책은 실패로 결론이 났다. 이 실패의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칼베가 지적하듯 기니에서 불어가 사회적 상승의 도구가 되었던 오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불어가 신분상승의 기회, 가시적 성공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기에, 학부모도 교사도 사회 지배층도 모두 개혁의 장점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sup>48)</sup> 이는 식민 시기를 겪으며 각인된 불어의 힘이 잔존한 것이겠지만, 단순히 식민주의의 유산이라기보다 전세계적인 ‘패권 언어’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주변부 언어가 외면받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다. 오늘

---

which are necessary to the authentic expression of our culture.”  
(Pan-African Cultural Manifesto issued in Algiers on 1 August 1969,  
Moura, *op.cit.*, p.7에서 재인용).

48) 루이-장 칼베, 『언어전쟁』, 김윤경, 김영서 역, 한국문화사, 2001, p.184.

날 흑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불어구사능력으로 보상을 받는 기회가 점차 줄면서 영어와 영어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sup>49)</sup>

그에 더해 표준국어를 8개(나중에는 6개)로 정했다는 사실은 한 국가를 8개의 언어권역으로 분할한 결과를 낳았고, 이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도 실패의 큰 원인이었다. 단일한 대체 언어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토착어가 존재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는 난망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인구 대부분이 월로프어를 사용하는 세네갈이었다.

독립 후 1960, 70년대의 ‘국어’ 내셔널리즘 움직임 가운데 두드러진 것으로 쎬벤 우스만 Sembène Ousmane 등 많은 이들이 전개한 캬두 Kàddu 운동이 있었다. 월로프어 잡지 《캬두》(1971년부터 약 5년간 발행)는 월로프어를 문자언어로 발전시키고 가다듬는 한편, 대통령 생고르의 철저한 친불 자세를 식민주의적 종속으로 비판하는 정치운동으로서의 색채도 진했다. 생고르의 대 프랑스 종속 자세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에게 언어 문제는 세네갈 내셔널리즘의 상징적인 핵이 되었으며, 야당, 노조 등 거의 모든 단체가 ‘국어’ 내셔널리즘을 그 주장의 핵심에 놓고 있었다.

그런데 대 프랑스어 언어내셔널리즘인 이 ‘국어’ 운동은 세네갈 내부에서는 ‘월로프어 내셔널리즘’이 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있다. 다수와 언어인 월로프어 외 다른 수많은 언어에는 부차적인 지위밖에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소수어를 억압하고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프리카 언어들의 ‘복권’이란, 프랑스어 지배와의 싸움일 뿐만 아

---

49) 폴랭 G. 지테, 「언어와 발전」, 홍미선, *op.cit.*, p.25-26 참조.

나라, 실은 중층적인 다언어 상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된다.<sup>50)</sup> 이처럼 지배언어에 대항하기 위해 다수가 사용하는 민족어를 내세우면 그 언어가 다른 소수어를 밀어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딜레마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모든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근본주의적인 견해는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실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앞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인용한 『언어와 식민주의』의 저자 루이-장 칼베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딜레마 앞에서 몇 개의 복수 언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인 다언어주의 쪽으로 향한다. 저서 『세계 언어들의 생태학을 위하여』(1999)에 기초한 「모어, 국민어, 국가어 - 언어생태학을 위한 중력 모델」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세계 언어의 생태학 지도를 영어를 정점으로 하여 광중심hyper centrale, 초중심super centrale, 중심centrale, 주변périphérique이라는 중층적 위계hiérarchie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는 언어의 지구화가 단 한 개 언어(영어)의 사용을 가져와 결국에는 나머지 언어들 전부나 대부분의 사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따라서 ‘정치적, 언어적으로 올바른’, 그러나 비현실적인 담론에 기반한 소수언어들의 옹호는 언어의 생태언어학적 균형을 해치는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매개언어(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몇 개의 큰 언어가 매개언어로서 중간에 서서 다극적 언어 배치를 만드는 것이 영어의 일극 지배에 대항하기 위한 유효하고 현실적인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sup>51)</sup> 그러나 소수언어 화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장

---

50) 스나노 유키토시, *op.cit.*, p.280.

이 결국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중성을 띠는 프랑스의 ‘문화적 다양성’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칼베의 사고를 기능주의적이라 본다면, 그 반대 극점에는 어떤 소수언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소수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출발한 윤리적 논의이다. 대언어에 의한 소언어의 도태는 자연사가 아닌 ‘언어말살’이며, 이를 막기 위해 소수 언어 화자의 언어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조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급진적이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sup>52)</sup>

그러나 언어생태계 보존 또는 소수언어 화자의 인권 보호라는 원칙은 흑아프리카 내부에서 논의되기에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으로 보이기도 한다. 식민주의가 황폐화시킨 토양 위에서, 또 여전히 몇몇 강대국이 주도하는 패권 질서 속에서 사회를 재건해야 할 흑아프리카인들에게, 그들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현실적인 가능성과 효과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불어라는 식민 통치의 유산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는 아프리카의 전통과 자긍심 회복이라는 전략이 더 긴요하나, 국제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세계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의 문제가 놓인다.

## 나가며 : 거부 또는 전유

---

51) 루이-장 칼베, 「모어, 국민어, 국가어 - 언어생태학을 위한 중력 모델」,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op.cit.*, p.35-49.

52) 토베 스쿠트나브-강가스, 「언어권: 최근 인권 문서들의 문제점과 논점들」,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op.cit.*, p.392-431.

그러나 언어 내셔널리즘과 실리추구라는 두 입장이 전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배자의 언어가 그 언어를 강요당한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나 저항의 언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민족주의나 탈식민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프랑스어라는 도구를 도구로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네그리튀드 운동’에서부터 시작해 면면히 이어져 왔다. 1930년대 파리의 아프리카 학생들(Aimé Césaire, L.S.Senghor, Léon Damas, Ousemane Socé)이 잡지 《흑인학생 L'Étudiant noir》을 중심으로 모여 식민지배자가 그들에게 부과한 자기부정에 맞서 흑인문화와 ‘흑인성’을 내세운 이 운동은 서구 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물론 이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무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이후의 정치적 측면에 대해 프랑스어권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연결한 비판도 많았다.<sup>53)</sup> 그러나 “프랑스어는 나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내가 불어를 식민지화했다. La langue française me colonise, je la colonise à mon tour”는 에메 세제르의 말처럼, 식민종주국의 언어를 ‘전유’하여 자신의 언어로 승화시켜 아프리카의 경험과 정신을 표현하고 널리 알릴 수 있음을 ‘네그리튀드’ 운동은 보여주었으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네그리튀드’라는 개념의 영향력에 큰 힘이 되었던 「검은 오르페우스」(생고르 등이 편한 『흑인과 마다가스카르인들의 새

53) 대표적으로 세쿠 투레 전 기니 대통령은 “네그리튀드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민족들과, 아메리카와 유럽의 유색인종들에게 자의적으로 적용된 인종차별을 만들어내는 비이성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그릇된 개념이며 비이성적인 무기이다.”라며 비판했다. 이 언급을 인용하며 장-루이 칼베는 네그리튀드 개념이 프랑스가 식민지배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국가들의 공식적인 사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네그리튀드’의 후예자인 현재 흑아프리카의 정치지도자들은 ‘프랑스어권’을 통해 식민주의와 자본을 선택한다고 평가한다. (『언어와 식민주의』, *op.cit.*, p.308)

시선집』의 서문)에서 장 폴 사르트르는 가까운 미래에 흑인 시인들은 불어 사용을 혐오하게 될 것이며, 네그리튀드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는 과정 자체라고 말한 바 있다.<sup>54)</sup> 네그리튀드와 프랑스어를 도구로서 또는 변증법의 한 단계로서 인정하고 종내는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 현지어를 적극 사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난관이 많아, 프랑스어 사용은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견해가 광범위하다. 다만 식민종주국의 언어, 제국주의의 언어, 또는 프랑스라는 일국의 언어라는 색채를 지우고 세계어로서의 불어를 이용하자는 주장이 대두된다. 프랑스어는 사용하는 이들 모두의 재산이며 프랑스인들은 그 공동 소유주에 불과하다며, 아프리카에서 쓰이고 있는 프랑스어는 “아프리카어로서의 프랑스어 *Français langue africaine*”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55)</sup> 이런 맥락에서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불어의 엄격한 규범을 따를 것이 아니라 자국화된 불어를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sup>56)</sup>

54) “Orphée noir”, Léopold Sédar Senghor (éd.),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 PUF, coll. Quadrige, 1992, p.IX-XLIV.

55)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는 외국어도 아니고 제2언어도 아닌 하나의 진정한 아프리카어, 즉 FLA (*Français langue africaine*, 아프리카어로서의 프랑스어)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 프랑스어는 이제 더 이상 엘리트 계층이나 권력집단의 독점물이 아니며 신성불가침한 사회적 지위의 상징도 아니다. 단지 하나의 고유한 매개 언어로서 그 학습방식과 사용형태에 따른 다양성이 인정될 뿐 학교의 언어인 동시에 거리의 언어, 나아가 일상적 담화의 언어다.” (피에르 뒤몽 Pierre Dumont의 저서 *Français langue africaine* 중에서. 홍미선, *op.cit.*, p.55-60 참조)

56) 대표적으로 ‘카메룬화된 불어 *un français Camerounisé*를 써야 한다는 카메룬 대학의 Simon Mpondo의 연설. (“*Degré zéro du Français à l’Université du Cameroun*”, Yaoundé, 8 Novembre 1972, Brian Weinstein, “Francophonie: A

특히 프랑스어를 사용해 자신들의 의견을 유통시키는 흑아 프리카의 작가와 지식인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프랑스라는 소속에서 자유로운 언어이기를 바란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대는 자연스럽게 언어에 부여되었던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언어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프랑스어의 탈국가화를 위해 투쟁해 복수(pluralité)의 언어로서의 프랑스어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미묘하게 갈린다.<sup>57)</sup>

2007년 르몽드지에 실린 ‘44인의 작가선언’, 《프랑스어 세계-문학을 위하여 *Pour une ‘littérature-monde’ en français*》<sup>58)</sup>는 양자를 통합하며 한걸음 더 나간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타하르 벤 젤룬, 에두아르 글리상 같은 유명한 ‘프랑스어권’ 작가들 뿐 아니라 르 클레지오, 에릭 오르세나와 같은 프랑스 문단의 작가들 역시 참여한 이 선언은, “자국과의 배타적 관계에서 해방된 언어, 시와 상상력의 권력 말고는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언어”로 “프랑코포니의 종말과 프랑스어로 된 세계-문학의 탄생”을 열자고 주장한다.<sup>59)</sup> 중심과 주변이라는 개념을 전복한 이 선언은 프랑스어

---

language-based movement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0, No.3 (Summer, 1976), p.496에서 재인용)

57)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파트릭 사무와조의 인터뷰를 보자. “Les enfants ne sont plus comme nous; leur rapport à la langue, à une langue, n’est pas le rapport que nous avons qui était un rapport fondateur, constructeur, un rapport d’élévation, de lutte, de progression. (...) La langue a pris des distances quant à la notion d’identité, c’est-à-dire que la langue ne sert plus à définir une culture, une identité.” (Lise Gauvin, *L’Ecrivain francophone à la croisée des langues. Entretiens*, Karthala, 1997, p.37, Parker, *op.cit.*, p.705에서 재인용) 후자의 예로는 Achille Mbembe, “Dénationaliser la langue française” (mercredi, 22 février 2006, [http://multitudes.samizdat.net/Dénationaliser la langue française](http://multitudes.samizdat.net/Dénationaliser_la_langue_française))

58) *Le Monde*, 16 mars 2007.



와 프랑스로 된 문학의 함의를 바꾸는 데 있어 중요한 발상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프리카 대다수의 나라에서 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문맹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이는 현지 대중들의 언어 현실과는 또다른 차원의 논의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

59) “Comment s’en étonner si l’on s’obstine à postuler un lien charnel exclusif entre la nation et la langue qui en exprimerait le génie singulier - puisqu’en toute rigueur l’idée de “francophonie” se donne alors comme le dernier avatar du colonialisme? Ce qu’entérinent ces prix d’automne est le constat inverse : que le pacte colonial se trouve brisé, que la langue délivrée devient l’affaire de tous, et que, si l’on s’y tient fermement, c’en sera fini des temps du mépris et de la suffisance. Fin de la “francophonie”, et naissance d’une littérature-monde en français : tel est l’enjeu, pour peu que les écrivains s’en emparent. (...) Le centre relégué au milieu d’autres centres, c’est à la formation d’une constellation que nous assistons, où la langue libérée de son pacte exclusif avec la nation, libre désormais de tout pouvoir autre que ceux de la poésie et de l’imaginaire, n’aura pour frontières que celles de l’esprit.”

프랑코포니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선언에 참여한 작가들이 “프랑코포니의 파괴자들”이 되려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Abdou Diouf, “Une nouvelle guerre de cent ans”, *Le Monde*, 19 mars 2007)

□ 참고 문헌

<단행본>

- Deniau, Xavier, *La francophonie*, coll. *Que sais-je?*, PUF, 1983
- Farandjis, S., *Philosophie de la Francophonie*, Paris: L'Harmattan, 1999
- Moura, Jean-Marc, *Littératures francophones et théorie postcoloniale*, PUF, 1999
- Viatte, Auguste, *La Francophonie*, Paris, 1969
- 김승진, 이복남, 한양환, 『세계 프랑스어권 지역연구』, 푸른길, 2003
- 김진식, 정남모, 『세계 프랑스어권 지역의 이해』,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9
- 루이-장 칼베, 『언어와 식민주의』, 김병욱 역, 유로서적, 2004
- 루이-장 칼베, 『언어전쟁』, 김윤경, 김영서 역, 한국문화사, 2001
- 미우라 노부타카, 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이연숙, 고영진, 조태린 역,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역, 인간사랑, 1995
- 홍미선,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 한울, 2009

<논문>

- Kasuya, Keisuke, "Discourses of linguistic dominance: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French language ideology",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7(3-4), 2001, p.235-251
- Parker, Gabrielle, "Francophonie et universalité: évolution de deux idées jumelles (1961-2006)", Pascal Blanchard et

- al.(dir.), *Culture coloniale en France -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à nos jours*, CNRS, 2008, p.695-708
- Sartre, Jean-Paul, “Orphée noir”, Léopold Sédar Senghor (éd.), *Anthologie de la nouvelle poésie nègre et malgache de langue française*, PUF, coll.Quadrige, 1992, p.IX-XLIV
- Weinstein, Brian, “Francophonie: A language-based mouvement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30, No.3 (Summer, 1976), p.485-507
- 김병욱, 『프랑코포니의 언어관 탐색 - ‘문화적 예외’와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언어』, 한국프랑스학논집, 64집, 2008, 한국프랑스학회, p.1-28
- 노서경, 「프랑스 식민주의 비판 사학의 동향 - 질 망스롱과 클로드 리오취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제19호, p.249-278
- 윤용수, 「레바논의 프랑스어 수용 양상 연구」, 아랍어와 아랍문학, 제15집 1호 (2011.4), p.1-29
- 최병대, 「프랑코포니(francophonie) 프랑스어 사용국가들의 특성」, 인문과학 제 29집 (1999), p.179-192
- 최은순,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 지역과 프랑스어」, 불어불문학연구 제 56집, p.1017-1033

<웹사이트>

- Achille Mbembe, “Dénationaliser la langue française”, article mis en ligne mercredi 22 février 2006,  
<http://multitudes.samizdat.net/article.php3?id-article=2330>  
 <프랑스어권 국가연합기구 (OIF)> <http://www.francophonie.org>  
 <아프리카 민주주의를 위한 청년연합Jeunesse Unie pour la Démocratie en Afrique (J.U.D.A)>

<http://www.lajuda.blogspot.com/>

<L'aménagement linguistique dans le monde>

<http://www.tlfq.ulaval.ca/axl/index.html>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http://www.ethnologue.com/country\\_index.asp?place=Africa](http://www.ethnologue.com/country_index.asp?place=Africa)

«Résumé»

## Le colonialisme, le langage, l'Afrique noire “francophone”

OH Eun-Ha

(Université nationale de pédagogie de Corée)

Des appellations comme Afrique “francophone” ou Afrique “anglophone”, etc., posent le problème de l'héritage colonial. Néanmoins si nous appelons souvent “l'Afrique noire francophone”, des pays anciennement colonisés par la France, situés dans la région subsaharienne, c'est au moins partiellement pour la raison que les pays en question se regroupent dans le secteur “francophone”. C'est de leur propre initiative, après la décolonisation, qu'est fondée l'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OIF). D'ailleurs, presque tous les pays de cette région donnent à la langue française le statut de langue officielle, bien que le nombre de locuteurs du français y reste très faible.

L'Organisation de la Francophonie affiche son but comme la défense de la “diversité culturelle et linguistique” contre la monopole de l'anglais dans le monde entier. Pourtant, il

nous semble que l'idéologie de la "francophonie" tente de défendre les privilèges anciens du français qui a été contraint de céder à l'anglais son statut de langue internationale. De plus, la situation linguistique des pays d'Afrique francophone montre que cette même idéologie s'élève tout autant contre les revendications des minorités quant à leur propre droit linguistique fondamental. Au lieu des langues autochtones africaines, c'est le français qui y est imposé comme la langue de l'administration et de l'éducation.

En faveur de ce statut du français comme langue officielle, des gouvernements africains mettent en avant des raisons comme la facilité de communication, la possibilité plus grande de prendre place dans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et l'anticipation des avantages économiques. La multiplicité des langues autochtones et le taux d'analphabétisme très haut justifient ce choix. Mais d'un autre côté, il y a de fortes oppositions à ce statut inversé du français et des langues africaines.

D'une part, on constate le fait que le statut officiel du français n'a que peu de relations avec son usage par la population. La francophonie de l'Afrique subsaharienne semble être dûe à la francisation linguistique de certaines couches sociales, qui partagent depuis l'ère de la colonisation la conviction mythique de la "clarté française" et de la "mission civilisatrice" associée à la langue française.

D'autre part, certains s'opposent à la domination linguistique dans la perspective du nationalisme ou du post-colonialisme.

Parce qu'ils considèrent leur langue comme fondement de l'identité nationale et intermédiaire de la culture traditionnelle, certains revendiquent le soutien et le développement des langues africaines. Deux tentatives représentatives de cette démarche ont été la politique linguistique pour la décolonisation culturelle de Guinée, et le mouvement "Kàddu" de Sénégal contre la dépendance à la France mené par le gouvernement de Senghor. Mais l'échec de ces deux tentatives a montré plusieurs problèmes difficiles autour de la domination linguistique. Entre le rejet total de la langue colonisatrice ou sa réappropriation pour s'exprimer, les débats continuent.

주제어: 프랑스어권 흑아프리카, 프랑스어권, 프랑스어권 국제기구, 식민주의, 언어정책

mots-clés: Afrique noire francophone, Francophonie, OIF, colonialisme, politique linguistique

투고일: 2011년 9월 20일

심사일: 2011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25일